

兒童의 親社會的 行動發達에 影響을 미치는 家庭環境 및 社會認知的 要因들

A Study on Home Environmental & Social Cognitive Factors Affecti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

崇義女子專門大學 家政科
副教授 韓 順 玉

Dept. of Home Economics Soong-Eui Woman's Junior College
Associate Prof.; Soon Ok, Hahn

< 목 차 >

I. 序 論	미치는 要因들
II. 親社會的 行動의 概念構成과 基本觀點	IV. 結 論
III. 兒童의 親社會的 行動發達에 影響을	參考文獻

< Abstract >

This study is mainly concerned with providing a basis for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he main two factors affecti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 are home environmental and social cognitive ability, and concrete variables in these factors are as follows :

- 1) Home environmental factor ; parental warmth, parental restrictiveness and inductive reasoning and prosocial modeling.
- 2) Social cognitive factor ; children's role taking ability and empathic ability and with these, several situational variables are also concerned with prosocial behavior.

I. 序 論

고도로 발달된 現代의 産業社會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물질만능, 기계만능의 가치관 팽배와 더불어 우리는 또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 溫情 과 協同보다는 競爭과 個人的 能力을 더 요구하는 社會環境 속에서 人間은 점차로 利己의인 存在로 變化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아동들에게도 파급되어 가고 있다. 學業成績 위주의 學校教育, 核家族의 보편화, 子女數의 감소, 등의 社會環境 속에서 兒童들은 自己中心的이며 경

쟁적인 성향을 배우게 되고 他人과 協同할 줄 모르는 兒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時代的 狀況으로 兒童들이 어려서부터 他人과의 관계에서 보다 친절하고 협동적이고 사려깊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장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면서 兒童의 親社會性發達 研究에 대한 要求 또한 절실해 지고 있다.

親社會的 行動(prosocial behavior)은 자신의 이익보다 他人의 이익을 우선하며 他人을 도와주는 行動으로 정의되며, 協同, 도와주기, 나누어가지기 위안 등의 행동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親社會的 行動의 發達的 變化와 그 動機, 影響要因들에 대한 연구들이 最近에 와서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다.

外國의 연구들을 통해서 볼때 대체로 年齡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도 증가하며 親社會的 行動의 動機도 直接的 物質的 補償에서 社會的 非物質的 補償으로 변화해 감을 알 수 있다.¹²⁾²⁵⁾ 이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兒童들의 親社會的 行動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 아동들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親社會的 行動을 더 많이 하며, 행동의 유형에 있어서 물질적 도움보다는 비물질적 도움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 도움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아동일수록 남을 도우고자 하는 의사를 더 많이 보임으로써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이 報恩的 動機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¹⁾

兒童의 親社會的 行動은 위의 年齡 動機的 要因뿐 아니라 부모의 養育態度⁵⁾ 親社會的 모델제시²⁵⁾ 주위 상황²³⁾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社會認知的 要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는데, 이와 같은 要因들의 영향력이 兒童에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몇편의 연구는 대부분이 親社會的 行動의 發達的 變化와 動機에 대한 조사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우리의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兒童의 親社會的 行動을 촉진하게 되는가를 몇가지 관점을 토대로 해서 살펴봄으로써 아동이 또래들과의 友互的 關係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教育方案을 모색해 보고자 한

다.

II. 親社會的 行動의 概念構成과 基本觀點

親社會的 行動(prosocial behavior)은 일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親社會的 行動으로 규정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오늘날 ‘도움 행동’(helping behavior) 利他的 行動(altruistic behavior), 親社會的 行動(prosocial behavior)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특히 利他的 行動이란 개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Staub(1978)은 利他的 行動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만 있고 그 행동을 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物理的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⁹⁾ 또 Zahnwaxler등(1979)은 利他的 行動이란 他人의 이익에 대한 관심 또는 헌신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했으며,³⁷⁾ Krebs(1970)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행동”으로 정의했다.¹⁸⁾

따라서 利他的 行動은 도움을 주는 자가 어떤 형태의 報酬를 받는다는 기대없이 타인을 도와주는 행동을 의미하며 이와 비교해서 親社會的 行動은 행동의 동기에 관계없이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행동을 포괄하는 보다 폭넓은 범주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행동의 動機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채 도우는 행동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이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측정방법도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실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들 개념들을 동일한 범주로 간주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와같은 현실을 고려해서 親社會的 行動의 概念을 행동의 動機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동들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親社會的 行動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행동유형으로는 同情(symathy), 관용(generosity), 도와주기(helping), 協同(cooperation), 나누어가지기(sharing), 위안(conforting), 자선(charity), 등이 있는데 이들중 실제 연구에서 親社會性 측정에 빈번히 사용되는 것은 자

신의 소유물을 他人과 나누는 나누어 가지기(sharing),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도와주기(helping), 주어진 과제를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수행해 내는 협동(cooperation) 등이다.

또한 연구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연령수준에 따라 서로 측정되는 행동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이 발달해 가는 과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중 본 논문의 主題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學習理論의 觀點, 認知發達論의 觀點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學習理論의 觀點

學習理論에서는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發達は 物質的 精神的 補償이라는 外的刺戟에 의해서 直接的으로 그리고 親社會的 行動모델들에 의해서 間接的으로 學習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먼저 學習理論에서는 親社會的 行動의 發達過程을 설명하기 위해서 古典的 條件化(classical conditioning)와 操作的 條件化(operant conditioning)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즉 親社會的 行動은 그 행동과 동시에 주어진 칭찬, 선물 등의 外的補償에 의해서 보다 強化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드러나는 外的 補償이 없어도 親社會的 行動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또한 感情的 條件化(affective conditioning)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 外的으로 補償을 받았을 때 이와 동시에 야기되는 즐거운 感情까지 條件化되어 그 이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外的補償 없이도 도움을 주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親社會的 行動은 內在的으로 強化(intrinsically reinforcing)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다.³⁵⁾ 또 Aronfreed(1968)와 같은 學習理論家들은 共感的 反應(empatic reaction)의 조건화를 통해서도 親社會的 行動이 強化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즐거워 하는 상황을 보면서 자신도 괴로워 지거나 즐거워지는 경험이 누적된다면 그러한 고통을 덜어주려는 행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²⁾ 가령 몇명의

아동이 동시에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서로 즐거워 하면서 먹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주는 즐거운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아지고 이것이 內在的 強化가 되어 다음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즐거움을 제공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條件化過程을 통한 學習理論에서는 아동의 認知的 能力측면의 작용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古典的 學習理論家들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社會學習理論이 제시된다. 社會學習理論에서는 아동은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기대를 근거로 도덕적,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外적 보상에 대한 기대와 內的 補償에 대한 기대가 모두 작용한다. 고본다.³⁾

즉 아동은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등의 外的 補償도 고려했지만 이와 더불어 그 행동을 수행했을 때 겪을 自己滿足感이나 罪責感 등의 內的 補償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중 보다 중요한 결정인자는 아동의 內的 道德의 기준으로서 보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동은 다양한 學習經驗을 통해 어떤 경우에 자신이 親社會的 行動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規則性을 추출해 내는데, 이렇게 추출해 낸 규칙성들을 종합해서 個人的 行動基準이라는 형태로 內面化시키게 된다. 그런데 社會學習理論에서는 內面化過程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험은 부모나 教師로부터의 言語的 教育, 다른 社會的 모델의 행동들을 통한 觀察學習 등의 社會學習經驗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아동의 年齡이 증가하고 知的으로 보다 성숙해감에 따라 좀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社會學習經驗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親社會的 行動의 범위도 넓혀져 가게 된다고 본다.

2. 認知發達論의 觀點

認知發達論자들은 주로 社會認知領域에서 兒童의 道德的 推論過程에서의 發達の 變化를 기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¹⁷⁾ 즉 아동의 道德性 發達は 고정된 단계순서를 따라 進行되는데 各段階는 다른 段階와 구별되는 독특한 사고구조를 진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認知發達論자들은 또한 아동

의 親社會的 行動의 動機도 年齡變化에 따라 여러 段階를 거치면서 발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3단계로 설명한다.

제 1 단계 ; 7세 이전의 前操作期로서 이 段階의 아동은 他人의 要求를 고려 할 能力이 부족해서 주로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快樂的 動機에 의해 親社會的 行動을 수행하는 利己的(egocentric) 段階이다. 이 단계의 아동은 어떤 親社會的 行動이 外的인 補償을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때에야 그 行動을 수행한다.

제 2 단계 ; 국민학교에 다니는 時期인 具體的 操作期인데 이 時期의 아동은 또래 친구들과의 相互作用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와 타인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음을 배우며,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고통과 행복을 주는 要因들을 추적하는 能力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親社會的 行動을 할 수 있게 된다.

제 3 단계 ; 靑少年期에 해당되는 形式的 操作期로서 이 단계에 들어서면 道德的 公平性(moral fairness)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원칙을 추출해 낼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能力이 親社會的 行動의 수행을 보다 고무시키게 된다.

위와 같은 親社會的 行動의 發達的 變化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또한 認知發達論者들은 親社會的 行動의 영향인자로 예측되는 各各의 認知的 要因들이 多樣한 실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作用하는가를 검증해 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他人에 대한 役割眺望能力(role taking ability)과 親社會的 行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그것인데, 구체적으로는 視覺眺望能力, 感情眺望能力, 思考眺望能力 등의 要因들이 이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發達過程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가지 觀點을 살펴 보았다. 學習의 측면을 강조하는 觀點, 認知發達의 측면을 강조하는 觀點이 그것인데 아동의 親社會的 發達過程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이 2가지 觀點중 어느 것도 완전히 배제되지 못하며 이에 더하여 生存的 측면을 강조하는 社會生物學的 觀點까지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질 수도 있다.

III. 兒童의 親社會的 行動發達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

앞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理論的 觀點들을 토대로 해서 현실상황에서 兒童의 親社會的 行動發達을 자극하게 되는 具體的 要因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家庭環境의 要因

家庭에서의 부모의 子女에 대한 養育環境과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間에는 상당히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이 여러 研究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家庭環境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下位要因들 중 특히 의미있는 영향력을 보이는 要因들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溫情性(parental warmth)

子女에 대한 愛情表現에 인식하지 않고, 子女의 要求에 敏感하게 反應해 주며, 비판이나 체벌보다는 稱贊이라는 긍정적 강화를 보다 즐겨 사용하는 溫情性이 높은 養育態度는 아동의 親社會성을 자극시킨다. 부모의 사랑의 표현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他人들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 開放性을 갖게 해 주며 부모의 肯定的인 反應이 또한 다른 또래아동에 대한 동정과 친절함의 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Hoffman과 Saltzstein(1967)은 부모의 溫情과 子女의 親社會的 行動과의 關係에 대한 研究에서, 부모를 溫和하고 사랑스럽다고 知覺한 아동일수록 다른 아동에 대해 보다 관대하고 위안적이며 협동적인 行動特性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으며,¹³⁾ Bryant와 Crokenberg(1960)도 아동의 親社會性 發達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장 유용한 것은 바로 아동의 要求에 대한 부모의 따뜻한 反應이라고 제시하고 있다.⁵⁾

2) 부모의 嚴格性(Parental restrictiveness)

여러 연구들에서보면 子女養育에서는 단순히 부적절한 行動을 지적하는 선에서만 反應하는 부모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親社會的 行動에 대한 精神的 像(image)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즉 관대한 許容보다는 약간의 嚴格性이 아동의

親社會性 發達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Whiting과 Whiting(1975)은 미국을 비롯한 東西洋 6國을 대상으로 한 比較文化的 調查研究에서 아동의 利他性을 필요로 하고 또 부모가 이를 적극적으로 要求하는 문화권에서 자라난 아동이 보다 높은 親社會性을 보임을 입증했으며,³⁶⁾ Zahm Waxler 등(1979)도 親社會的인 아동에게는 子女에게 社會的으로 責任있는 行動을 기대하고 또 이를 要求하는 어머니가 있음을 밝혀냈다.³⁷⁾ 또 Olejnik과 McKinney(1973)도 바람직하지 못한 行동을 저지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行동을 촉진시키는 훈육 방법을 쓰는 부모의 子女가 親社會성이 높음을 발견했다.²¹⁾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요구의 효율성이 아동의 年齡이 높아짐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적극적인 지도의 효율성이 反轉되는 연령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성인들의 경우 利他的 行動을 하도록 外的으로 압박을 받을수록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自發적으로 利他行動을 하는 경향이 줄어들게 된다는 Uranowitz(1975)³⁴⁾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요컨대 부모의 허용성 엄격성이라는 양육태도 요인은 아동의 發達水準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낳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연구에서는 外的 嚴格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연령은 어느 단계까지이며 어느연령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內的 自發性的의 유도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發達的 研究들이 계속 수행 되어야 하겠다.

3) 誘導的 推論(inductive reasoning)

社會的 責任과 같은 規範에 대해 경고하고 엄격하게 要求함으로써만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을 유발시키려는 것은 合理的 方法이 되지 못한다. 보다 효과적인 養育이 되기 위해서는 親社會的 行動을 추천하는 正當性을 지니는 誘導的 推論的 過程이 필요하다.

Hoffman과 Saltzstein(1967)은 誘導的 推論으로 親社會성에 대한 요구를 正當化 시킬수 있는 부모는 아동의 親社會성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다고 했으며,¹³⁾ Zahn Watler 등(1979)도 幼兒를 대상으로 한

觀察研究에서 아동이 잘못했을때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교정해 주는 어머니의 아동일수록 다른 아동을 배려하는 성향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³⁷⁾ 또 이와 더불어 실제 또는 T.V 등의 투쟁상황에서도 희생자 중심의 推論 즉 아동의 行動이 他人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적하는 推論的 養育態度가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을 고려하는 성향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본다.²²⁾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때 아동의 親社會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부모의 養育態度 要因들로는 부모의 溫情性和 적정수준의 嚴格성 그리고 親社會성을 誘導할 수 있는 合理的인 설득 방법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으며 이중 특히 嚴格성이란 요인에 있어서는 그 효율성의 發達的 變化過程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親社會的 모델要因

이와 더불어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부모양육 요인으로는 모델효과를 들 수 있다. 모델효과는 Bandura(1977)의 觀察學習理論的 觀點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親社會的 行動모델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親社會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³⁾

Perry와 Bussey(1984 : 247)는 親社會的 模型이 아동에게 실제로 親社會的 行動을 學習하게 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로 아동은 자기와 닮거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親社會的 行動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行動이 自身에게도 適切한 것이라고 推論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親社會的 行動觀察로 아동은 남을 도움으로서 나타나는 肯定的 結果를 보고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세째로 아동은 말로만 듣던 親社會的 行動의 實現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情緒的 感動을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行動實現의 刺戟體로 작용하게 된다.

觀察學習의 효과는 실제로 여러 실험연구에서도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Rosenhan과 White

(1967)는 실험상황에서 놀이중 자신이 얻은 것의 반을 남에게 주는 모델을 본 아동이 통제집단의 아동보다 나누기 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밝히고 있다. 또 이러한 모델 효과는 觀察時點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Rush-tan(1975)의 연구에서 觀察學習 8주후의 실험에서 대상아동들이 새로운 또래집단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親社會성을 보임을 발견한 것이다.²⁶⁾

이와 더불어 實驗狀況이 아닌 自然狀況에서의 모델효과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모, 教師 T.V등에 의해 學習된 모델효과가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發達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親社會성 모델효과는 養育態度와 親社會성과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어지는 것으로 부모 溫情的이고 積極的인 反應이 곧 對人關係 反應의 모델로 작용해서 아동의 親社會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울러 現代社會에서 많은 모델효과를 낳는 主體로 T.V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대체로 T.V 프로그램의 모델효과는 攻擊성을 주제로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Sprafkin등(1975)은 국민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T.V의 親社會성 프로그램을 시청한 아동에게서 理論的 行動의 수행빈도가 의미있게 높아짐을 밝혀 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효과는 그 모델이 아동에게 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성격의 사람일수록,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社會認知的 要因

認知發達論의 觀點에서 보면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發達에는 다양한 社會認知的 要因들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이 役割眺望能力, 共感能力, 道德理判斷能力 등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共感 및 役割眺望能力

共感(empaty)이란 타인이 경험하는 것과 同一한 感情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役割眺望能力(role taking)은 他人이 어떻게 지각하고 느끼며 생각하는가를 정확하게 理解는 하나 반드시 타인과 같이 느끼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두가지 능력은 모두 他人指向의 能力이며, 親社會的 行動을 위해서는 이들 두 能力要因이 모두 유용하다. 먼저 役割眺望能力과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間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보면 또래 아동들에게 보다 협동적이고 관대하고 조력적인 아동들은 思考眺望, 感情眺望, 視覺眺望등의 일련의 역할조망 과제의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6,8,24)} 思考眺望과 感情眺望을 훈련받은 아동집단에서 그 이후 보다 많은 도움행동 수행이 나타났다는 Ionnotti(1978)의 연구결과도 이를 입증해준다. 한편 아동의 共感能力과 親社會性 發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높은 共感能力을 지닌 아동에게서 협동, 도와주기, 나누어가지기 등의 親社會的 行動水準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⁹⁾ 제시된 반면 共感的인 아동이 非共感的인 아동보다 또래에 대해 더 攻擊的으로 행동한다고 보고한 연구¹¹⁾ 있어 관심을 끈다.

이렇게 모순된 연구결과는 연구에 사용된 共感尺度나 對象兒童年齡 등의 요인이 相互作用했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그런데 Hoffman(1981)은 위의 두가지 社會認知能力 요인 즉 役割眺望能力과 共感能力 모두를 親社會성의 動機化를 위한 必要條件으로 지적했다.¹⁴⁾ 즉 感情的으로 共感이 이루어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이 他人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한다면 상대를 위하는 行動을 발현시키지 못할 것이며, 타인의 반응을 정확하게 지각하더라도 그 상황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느끼지 못한다면 역시 行動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感情的으로 각성됨과 동시에 그 각성을 유발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知覺能力을 지닌 램에게서 親社會的 行動경향이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2) 道德判斷能力

취학전아동 및 초기학동기의 도덕적 推論은 주로 快樂的, 固定觀念的, 承認指何의이지만 때로는 상대의 요구를 참조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推論의 內容이 보다 內的 欲求指向의이며 일반적인 규범의 內面化가 가능해 진다.

Eisenberg와 Hand(1979)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다 要求指向的이고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하며, 또래에 대한 자발적 회상행동도 더 빈번히 보여준다고 밝히고 있다.¹⁰⁾ 또한 도덕판단능력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이 도움행동의 빈도를 높게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8,24)} 이를 입증해 준다.

위와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때 아동의 役割受容能力과 共感能力 그리고 道德判斷能力 등은 어떤 형태로도 親社會性 發達에 影響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며 이중 共感能力의 影響력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척도와 조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Hoffman의 관점을 토대로 役割受容能力과 共感能力이 어떻게 복합적 상승작용을 이루어 내는가에 대해서도 검증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3. 기타 친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狀況的 要因

지금까지 아동의 親社會性 發達에 影響을 미칠수 있는 주원인으로 家庭環境的 要因과 社會認知的 要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실제생활의 場에서 보면 위의 두 주원인과 더불어서 變化하는 주의상황이 아동 親社會的 行動에 極的인 影響을 미치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황의 影響력은 특히 行動의 주된 기준이 外的 刺激에 의해 설정되는 初期 아동기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제반상황요인들을 추가로 점검해 보기로 한다.

1) 助力者의 心理狀態(State of the potential helper)

개인의 心理狀態는 他人들에 대한 親社會的 行動實現의 강력한 影響요인으로 作用할 수 있다. 가령 幸福感을 주는 많은 경험들은 아동과 성인모두의 親社會的 性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즐거운 일을 상상하는 상황, 게임이나 일에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보다 높은 親社會的 性向을 보인다. 아마도 幸福感이 個人的 能力과 善意에 대한 自覺을 증가시키고 非利他的 行動에 대한 罪責感을 크게 하기 때문일 것이

다. Rosenhan등(1974)은 실험연구를 통해서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선물을 받는 등의 즐겁고 행복한 상상을 하도록 요구받은 兒童集團에서 中立的 생각으로 지속된 통제집단보다 친구와 돈을 나누는 행동빈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으며,²³⁾ 또래집단에서 人氣 있고 정서적으로 安定되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동이 이러한 特性이 부족한 아동보다 親社會的으로 行動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¹⁵⁾도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아동이 자신이 제외된 상태에서 他人들의 幸福感을 상상하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親社會的 行動이 촉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Rosenhan등(1981)은 자신아닌 친구들이 海外여행을 가는 상황을 상상하도록 요구받았을때 이들 집단의 親社會的 行動은 中立的 狀況에서보다도 더 떨어짐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는 질투심등의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행복감 경험이 親社會性 촉진시키지만 이는 결국 자신의 體驗에 국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의 否定的인 心理狀態 역시 他人에 대한 親社會的 行動경향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否定的인 心理狀態는 親社會性을 減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Moore(1973)의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보면 넘어져서 다치거나 생일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는 등의 슬픈 감정상황을 상상하게 했을 때 이들 집단의 아동은 中立的 상상을 요구받은 통제집단의 아동에 비해서 나누어 가지는 행동의 빈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²⁰⁾ 이와 같은 결과는 슬픈 상황에서 아동은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방향에 집착하게 되고 따라서 가능한 한 자신에게 안락함을 주는 방향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否定的인 心理狀態이나 옆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성인이 存在하는 경우이다. 즉 心理的으로 슬픈 상태이나 성인 觀察者가 옆에서 있거나 서 있다고 상상하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남에게 자신의 물건을 나눠주는 親社會的 行動일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¹⁶⁾ 이는 성인의 칭찬을 통해 자신의 우울함을 감소시켜 보려는 心理的기제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도움에 드는 댓가(Cost of helping)

거의 모든 도움상황에서는 돕는 사람에게 잠정적 댓가를 치르도록 요구된다. 따라서 個人은 두 가지 목표 즉 자신의 이익과 利他性 사이에서 갈등의 과정을 겪게 된다. Tims등(1976)은 男子大學生들을 상대로 한 설문지 조사에서 질문의 응답에 걸리는 시간이 긴 형태의 설문지일수록 거절하는 비율도 늘어났음을 밝히고 있고,³²⁾ Darly와 Batson(1973)도 神學校 學生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치루어야 할 댓가가 큰 상황일수록 상대를 도와주는 경향이 감소함을 발견했다.⁷⁾ 한편 아동集團에서는 協同狀況과 競爭狀況에 대한 比較研究를 통해 이 문제가 간접적으로 시사되고 있다. 즉 어떤 주어진 과제를 달성했을 때 그 작업에 참가한 아동 모두가 同等한 報賞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되는 상황에서 제일 잘한 한 아동만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도와준다든가 나누어 가지는 등의 親社會성이 빈번히 나타났다는 것이다.³¹⁾

반면 Sheif등(1961)은 아동기 少年들을 대상으로 여름 Camp에서 두집단의 아동들에게 競爭的 狀況을 제시한 결과 주어진 과제에 대한 경쟁심리가 과격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Camp에서의 다른 모든 생활에 까지 파급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됨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아동들에게는 어떤 목표나 보상을 다른 아동들과는 共有할 수 있어서 그 행동에 드는 댓가를 最少化시킬 수 있는 상황이 親社會的 行動을 유도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겠다.

3) 受惠者의 特性(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자신과 유사한 社會階層, 性別, 背景을 지닌 아동들에게 보다 助力的이며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¹⁸⁾ 그러나 여기에서 다른 要因들이 相互作用해서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가령 자신과 친한 또래 소년보다는 잘 모르는 또래 소년이나 소녀아동들에게 보다 관대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그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친근한 또래 친구들에서 오히려 경쟁심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Whiting등(1975)의 自然觀察 研究에서도 自由놀이 狀況에서 異質의 年齡集團의 경

우가 同質의 年齡集團의 경우보다 보호적, 협동적 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³⁶⁾ 이를 토대로 볼 때 아동들은 일차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特性을 지닌 아동들에게 보다 호의적, 반응을 보이거나 그 호의적 반응과 더불어 자신의 평가절하등의 희생이 요구될 때에는 오히려 異質의 特性을 지니는 아동에게 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됨을 알 수 있다.

4) 傍觀者의 存在(The presence of bystanders)

일반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傍觀者들이 주위에 있을 경우 상대를 도와주려는 욕구가 억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60년대에 美國 뉴욕市에서 대낮에 거리에서 38명이나 되는 목격자들이 한 女子가 살해되는 상황을 모두 방관하고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이러한 경향성을 입증해 준다.

Latane와 Darley(1970)는 도움행동이 실현되기까지의 심리적 과정을 3단계의 극복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 1 단계 : 회피억제의 과정으로 상황을 오판해서 행동했을 때의 위험성을 고려하는데 만약 주위에 남들이 같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위험성을 남들에게 맡김으로써 회피하고자 한다.

제 2 단계 : 사회적 영향의 단계로서 주위에 他人들이 있을때 이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를 비도움 상황으로 合理化시키하고자 한다.

제 3 단계 : 책임의 확산단계로 비록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인정되어도 주위의 타인들이 그대로 있을 경우 도움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시키하고자 한다.¹⁹⁾

하나의 도움행동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러한 심리적 극복과정을 거친다고 볼 때 주위의 방관자들의 存在는 도움행동, 실현에 부정적 要因으로 작용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검증되고 있는데 Staub(1970)은 국민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소녀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그 場面을 본 경우와 짝이 같이 있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짝이 방관하면서 옆에서 있는 경우가 도움행동에 방해를 반응을 제시했다. Perry와 Bussey(1984)는 이러한 방관자의 부정적 効果에 대해서 방관자의 存在는 당사자의 責任을 分散시킴과 동시에

방관자의 存在 그 자체가 關心不足의 하나의 본보기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²²⁾

5) 狀況의 直接性(immediacy of the situation)

대체로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거나 혹은 위급상황에 오래 노출될 때 더 잘 도움을 베풀게 된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보행자 바로 앞에 쓰러져 있을 때 그가 길 건너편에 넘어져 있는 경우보다 도움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Staub와 Baer(1974)의 연구결과가 이를 입증해 준다.³⁰⁾ 그런데 이러한 상황요인과 관련하여 아동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증연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6) 狀況의 모호성(ambiguity of the situation)

누가 무슨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을 모호한 상황보다 親社會的 行動을 더 촉진시킨다. Solomon등(1978)은 실험장면을 통해서 위급상황에서 피험자가 상대의 소리만을 들을 때 보다는 그 상대의 상태를 보면서 소리를 듣는 경우에 도움행동을 실현하는 경향을 높게 보임을 밝혔으며²⁸⁾ Schuarz와 Clausen(1970)은 신체적 고통으로 괴로와 하고 있는 사람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표정만 보이고 있는 경우보다는 자기코트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조력자의 도움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²⁷⁾

그런데 이 부분역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연구가 요구된다.

위에서 狀況的 要因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당사자의 心理狀態, 도움에 필요로 하는 댓가, 수혜자의 特性, 방관자의 存在 등의 요인들이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實現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중 수혜자의 特性要因은 다른 要因들과 복잡한 相互作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狀況의 모호성이나 직접성도 影響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아동集團을 대상으로 계속 검증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IV. 結 論

지금까지 현실상황에서 아동의 親社會的 行動發達과 實現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要因들에 대해서 몇가지 觀點을 基準으로 考察해 보았다. 여러 요인들중 부모의 溫情性 嚴格性, 誘導性 推論, 親社會的 모델 제시등의 家庭 環境的 要因들은 學習이론적 觀點이, 共感 및 役割, 跳望 能力, 道德, 判斷能力 등의 社會認知 要因들은 認知發達의 觀點이 부분적으로 그 기초가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두가지 이상의 觀點으로 복합적으로 설명되는 요인들도 있다. 그리고 밝혀진 구체적 요인들 중 그 影響력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난 것들도 많으나 연령에 따라 影響력이 反轉된다든가 또다른 요인들이 複合的으로 相互作用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었으므로 이들을 계속해서 밝혀보는 검증과정이 수행 되어야 하겠다. 특히 가정에서의 다양한 認知的 社會的 養育방법 들이 친사회성을 지지 또는 억제시키게 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이 보다 集中的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여러 신뢰롭고 타당하게 評價할 수 있는 측정도구들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동에게 親社會的 行動을 자극시켜 줄 보다 多樣하고 效率的인 環境을 조성 할 수 있게 되리라 본다.

參 考 文 獻

1. 서봉연, 유안진, 인간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82.
2. Aronfreed, J., Conduct and Conscience; The Socialization of Internalized Control over Behavior, N.Y.; Academic Press, 1968.
3. Bandura, 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7.
4. Bryan, J.H., "Children's Cooperation and Helping Behaviors", In E.M. Hetherington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5),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Press, 1975.
5. Bryant, B.K. & Crokenberg, S.B.,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 A Study of Female Siblings with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Vol. 51, p.529-544, 1980.
 6. Buckley, N., Siegel, L.S. & Ness, S., "Egocentrism,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5, p.329-330, 1979.
 7. Darley, J.M. & Batson, C.D., "From Jerusalem to Jericho: A Study of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Variables in Helping Behavior" *J.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 27, p.100-108, 1973.
 8. Dreman, S.B., "Sharing Behavior in Israeli School Children: Cognitive and Social Learning Factors" *Child Development*, Vol. 47, p. 186-194, 1976.
 9. Eberhard, M.T. W., "The Evolution of School Behavior by Kin Selection". *The Quarterly Review of Biology*, Vol. 50, p.1-33, 1975.
 10. Eisenberg, N. & Hand, M., "The Relationship of Preschooler's Reasoning about Prosocial moral Conflicts to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Vol. 50, p.356-363, 1979.
 11. Feshbach, N.D. & Feshbach, S.,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ppression in two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 p.102-107, 1969.
 12. Green, F.P. & Schneider, F.W., "Age Differences in the Behavior of boys on three Measure of Altruism". *Child Development*, Vol. 45, 1974.
 13. Hoffman, M.L. & Saltzstein, H.D.,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 p.45-57, 1967.
 14. Hoffman, M.L., "Is Altruism part of Human Natur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0, p.121-137, 1981.
 15. Hoffman, L.W.,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y*, Vol. 32, p.644-687, 1977.
 16. Kenrick, D.T., Baumrind, D.J. & Cialdine, R. B., "A Step in the Socialization of Altruism on Children's Generosity under Public and Private Condition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7, p.747-755, 1979.
 17. Kohlberg, L.,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A. 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1969.
 18. Krebs, D.L., "Altruism: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Vol. 93, p.258-302, 1970.
 19. Latane, B. & Darley, J.M., *The Unresponsive Bystander: Why Doesn't he help?* N.Y.: Appleton-Century-Crofts, 1970.
 20. Moore, B.S., Underwood, B. & Rosenhan, D. L., "Affect and Altruism"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8, p.99-104, 1973.
 21. Olejnik, A.B. & McKinney, J.P., "Parental Value Orientation and Generosity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8, p. 311-, 1973.
 22. Perry, D.G. & Bussey, K., *Social Development*, N.J.: Prentice Hall, 1984.
 23. Rosenhan, D.L., Underwood, B. & Moore, B., "Affect Mediates Self Gratification and Altruism"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0, p.546-552, 1974.
 24. Rubin, K.H. & Schneider, F.W.,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Judgement, Egocentrism and Altruistic Behavior", *Child Development*, Vol. 44, p.661-665, 1973.

25. Rushton, J.P., "Socialization and the Altruistic Behavior of Children" *Psychology Bulletin*, Vol. 83, p.898-913, 1976.
26. Rushton, J.P., "Generosity in Children: Immediate and long term Effects of Modeling, Preaching and Moral Judgement",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1, p.459-466, 1975.
27. Schwartz, S.H. & Clausen, G.T., "Responsibility, Norms and Helping in an Emergency",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6, p.299-310, 1970.
28. Solomon, L.Z., Solomon, H. & Stone, R., "Helping as a Function of Number of Bystanders and Ambiguity of Emergenc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4, p.318-321, 1978.
29. Staub, E., *Positive Social Behavior and Morality in Social and Personal Influences*. Vol. 1, N.Y.: Academic Press, 1974.
30. Staub, E. & Baer, R.S. JR., "Stimulus Characteristics of a Sufferer and Difficulty of Escape as Determinants of Helping".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0, p. 279-284, 1974.
31. Stendler, C.B., Damrin, D. & Hains, A.C., "Studies i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he Effects of Working for Group and Individual Rewards on the Social Climate of Children's Groups". *J. of Genetic Psychology*, Vol. 79, p.173-198, 1951.
32. Tims, A.R. JR., Swart, C. & Kidd, R.F., "Factors affecting Predecisional Communication Behavior after Helping Reques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2, p.271-280, 1976.
33. Trivers, R.L.,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The Quarterly Review of Biology*, Vol. 46, p.35-37, 1971.
34. Uranowitz, S.W., "Helping and Self-Attributions: A field experiment".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1, p.852-854, 1975.
35. Weiss, R.F., Buchanan, W., Alstatt, L. & Lombardo, J.P., *Altruism is Rewarding*, Science, 1971.
36. Whiting, B.B. & Whiting, J.W.M., *Children of Six Cultures: A Psychocultural Analysi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37. Zahn-Waxler, C., Radke-Yarrow, M. & King, R.A., "Child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 toward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Vol. 50, 1979.